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모두 발언

2024. 9. 12. (목) 9:34 ~ 9:38 (4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 참석해주신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님,
한국거래소 김기경 부이사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상반기부터
열린 토론을 개최하여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왔습니다.

금번 기관투자자 중심의
열린 토론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그간의 성과와 세부 실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과제

오늘의 열린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연금,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관한다는 점에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와
양질의 투자기회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총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주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관투자자 등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

우선,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내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국내 주식투자 규모('24.6말): 국민연금 158.7조원, 운용사 67조원(국내 주식형펀드)

금융감독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한계기업 적기 퇴출)

또한,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투자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일본 주식투자 비중:('10년) 11.5%→('23년) 24.7%

Ⅲ 맺음말

내외빈 여러분!

우리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에 더하여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를 보다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화롭고 예측 가능한 규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도
국민연금과 한국거래소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